

한 국 사

문 1.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의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굴, 바위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 ② 동물의 뼈로 만든 뼈도구와 뿔석기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 ③ 유적으로는 상원의 검은 모루, 제천 창내, 공주 석장리 등이 있다.
- ④ 조, 피 등의 곡물을 반달돌칼로 이삭을 추수하는 등 농경을 발전시켰다.

문 2. 밑줄 친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들이 받은 교육 내용은 주로 서양의 말과 문장, 탄약 제조, 화약 제조, 제도, 전기, 소총 수리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는 자질이 부족하여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다가 자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 ① 갑신정변을 주도하였다.
- ② 일본에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 ③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외국에서 3년 간 교육을 받았다.
- ④ 이들의 활동을 계기로 근대적 병기공장인 기기창이 설치되었다.

문 3. 18세기 이후 조선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서열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화되었다.
- ② 공노비는 사노비보다 더 가혹한 수탈과 사회적 냉대를 받았다.
- ③ 일반 서민 중에서도 부를 축적하여 지주가 되는 사람이 있었다.
- ④ 여자의 지위가 상승하여 딸도 아들처럼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았다.

문 4.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제의 중국 침략이 가속화되자 우리나라 독립 운동 단체들은 항일 세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민족주의 계열의 세 개 정당을 한국독립당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독립당은 김구가 중심이 된 단체로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집권 정당의 성격을 가졌다.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주석 중심제로 정부 체제를 개편하여 독립 전쟁을 전개할 강력한 지도 체제를 확립하였고, 그 후 _____

- ①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 ② 국민 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다.
- ③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 ④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하였다.

문 5. 다음은 어떤 책의 서문이다.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조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 “우리 조종의 심후하신 인덕과 크고 아름다운 규범이 훌륭한 전장(典章)에 퍼졌으니 … (중략) … 또 여러 번 내린 교지가 있어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관리들이 재주가 없고 어리석어 제대로 받들어 행하지 못한다. … (중략) … 이제 손익을 헤아리고 회통할 것을 산정하여 만대 성법을 만들고자 한다.”

- ① 국가 통치 규범을 확립한 『경국대전』이다.
- ② 국가 행사 때 사용될 의례 규범서인 『국조오례의』이다.
- ③ 후대에 모범이 될 만한 역대 국왕의 행적을 기록한 『국조보감』이다.
- ④ 효자, 충신, 열녀 등의 사례를 뽑아서 만든 백성들의 윤리서인 『삼강행실도』이다.

문 6.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나라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서로 죽이면 그 때에 곧 죽인다. 서로 상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하게 한다. 도둑질 한 자는 남자는 그 집의 가노(家奴)로 삼고 여자는 비(婢)로 삼는다. 노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50만전을 내야하는데 비록 면하여 민의 신분이 되어도 사람들이 이를 부끄럽게 여겨 장가들고자 하여도 결혼할 사람이 없다. 이런 까닭에 그 백성들이 끝내 서로 도둑질하지 않았고 문을 닫는 사람이 없었다. 부인들은 단정하여 음란한 일이 없었다.

— 『한서 지리지』 —

- ① 『삼국사기』에 따르면 요임금 때 건국되었다.
- ② 건국 사실이 『제왕운기』에도 기술되어 있다.
- ③ 사람의 생명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였다.
- ④ 이 나라의 이름이 『관자』라는 책에도 나오고 있다.

문 7. 다음은 어떤 왕의 즉위교서이다. 이 왕의 정책과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부터 만약에 종친으로서 동성과 혼인하는 자는 (원의 세조) 성지(聖旨)를 어긴 것으로 논죄할 터인즉, 마땅히 (종친은) 누대의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고, 재상 집안의 아들은 종실들의 딸들에게 장가들 것이다. … (중략) … 경원 이태후와 안산 김태후 및 철원 최씨, 해주 최씨, 공암 허씨, 평강 채씨, 청주 이씨, 당성 홍씨, 황려 민씨, 횡천 조씨, 파평 윤씨, 평양 조씨는 모두 누대의 공신이요, 재상지종(宰相之宗)이니 가히 대대로 혼인을 하여 아들은 종실의 여자에게 장가들고 딸은 왕비로 삼을 만 하다.

— 『고려사』 —

- ① 국가가 소금을 전매하는 각염법을 시행하였다.
- ② 북경에서 만권당을 설립하여 학문연구를 지원하였다.
- ③ 사림원을 두어 신진학자들과 함께 개혁을 추진하였다.
- ④ 고려에 내정 간섭을 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하였다.

- ① 쌀값이 올랐다.
- ② 면공업 발전에 타격을 주었다.
- ③ 지주나 부농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다.
- ④ 지방관의 방곡령 발령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문 16. 다음 농민봉기의 요구사항으로 옳은 것은?

주민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 나무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진주 읍내에 모여 서리들의 가옥 수 십 호를 불사르고 부셔서 그 움직임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병사가 해산시키고자 하여 장시에 나가니 흰 수건을 두른 백성들이 땅 위에서 그를 빙 둘러싸고는 … (중략) … 여러 번 문책했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그리고 병영으로 병사를 잡아 들어가서는 이방 권준범과 포리 김희순을 곤장으로 수십 대 힘껏 때리니 여러 백성들이 두 아전을 그대로 불 속에 던져 넣어 태워버렸다.

- ① 환곡의 폐단을 없애라.
- ② 노비 문서를 불태워라.
- ③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 ④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경작하게 하라.

문 17. 밑줄 친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무왕이 도읍의 성을 새롭게 하고자 승려에게 문의하였다. 승려는 말하였다. “비록 궁벽한 시골과 뗏집(茅屋)이 있다 해도 바른 도(道)만 행하면 복된 일이 영구히 지속될 것이요, 만일 그렇지 못하면 여러 사람이 수고롭게 하여 훌륭한 성을 쌓을지라도 아무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왕이 곧 공사를 그쳤다.

— 『삼국사기』 —

- ① 김제 금산사를 중심으로 미륵불이 지상에 와서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믿음을 가르쳤다.
- ② 『십문화쟁론』 등 수 많은 저술을 통하여 화쟁사상을 주창하면서 불교를 대중화하였다.
- ③ 삼장법사 현장에게 유식학을 배워 서명학파를 이루었으며, 티벳불교에 큰 영향을 주었다.
- ④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었으며, 부석사, 낙산사 등의 화엄종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폈다.

문 18. 다음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라의 100여 년에 걸친 고질 병폐로서 가장 심한 것은 양역이다. 호포니 구전이니 유포니 결포니 하는 주장들이 분분하게 나왔으나 적당히 따를 만한 것이 없다. 백성은 날로 곤란해지고 폐해는 갈수록 더욱 심해지니, … (중략) … 이웃의 이웃이 견책을 당하고 친척의 친척이 징수를 당하고, 황구는 젖 밑에서 군정으로 편성되고 백골은 지하에서 징수를 당하며 … (후략)

- ① 양반들도 군역을 지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 ② 군역 부담자의 군포 부담을 1필로 정하였다.
- ③ 군역청에서 관리하다가 선혜청이 통합하여 관리하였다.
- ④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의 토지 1결당 쌀 2두씩을 부과하였다.

문 19. 전근대사회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려시대에는 귀족이 죄를 지으면 형벌로 귀향을 시키기도 하였다.
- ② 조선시대 강상죄는 범죄 중에서 가장 무겁게 취급되었지만, 범인에 한정하여 처벌하였다.
- ③ 신라의 골품제도는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은 물론, 복색이나 수레 등 신라인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하였다.
- ④ 백제의 관리는 뇌물을 받거나 국가의 재물을 횡령했을 때 3배를 배상하고, 죽을 때까지 금고형에 처하였다.

문 20. 다음 밑줄 친 ‘이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들은 본시 모두 사대부였는데 또는 의료직에 들어가고 또는 통역에 들어가 그 역할을 7~8대나 10여 대로 전하니 사람들이 서울 중촌(中村)의 오래된 집안이라고 불렀다. 문장과 대대로 쌓아 내려오는 미덕은 비록 사대부에 비길 수 없으나 유명한 재상, 지체 높고 번창한 집안 외에 이들 보다 나은 자는 없다. 비록 나라의 법전에 금지한 바 없으나 자연히 명예롭고 좋은 관직으로의 진출은 막히거나 걸려 수백 년 원한이 쌓여 펴지 못한 한이 있고 이를 호소할 기약조차 없으니 이는 무슨 죄악이며 무슨 업보인가?

— 『상원과방』 —

— <보 기> —

- ㄱ. 이들도 문과와 생원, 진사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 ㄴ. 조선 후기에는 시사(詩社)를 조직하여 문예활동을 하였다.
- ㄷ. 정조 때 이덕무, 박제가 등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기용되어 활동하였다.
- ㄹ. 연합상소운동이 성공하여 명예롭고 좋은 관직(청요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ㄹ